트레이드 렌즈
TRADE LENS

투자에 초점을 맞추다.

MACRO INSIGHT / No.13

한국 신용 · 자금 용도 · 실물경제와 상환 여력

한국의 신용 확대는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질까

가계·기업대출의 자금흐름 분석

대출·통화·소비·투자를 잇는 세 가지 현금흐름 검증

+6.4조원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1]

+10.2조원
10월 은행 기업대출 [2]

4.57%
9월 신규취급 대출금리 [7]

대출은 늘었다.
회복의 크기는 돈의 사용처와 상환 여력이 가른다.

신규 수요를 만드는 차입과 기존 부담을 메우는 차입을 구분한다.

분석 기준일 2026.11.14

TRADELENS.KR

사업·산업·거시경제의 구조와 경제적 효과 분석

01 / RESEARCH VIEW

대출의 증가보다 자금의 사용처가 회복을 가른다

핵심 질문: 늘어난 신용이 신규 수요를 만드는가, 기존 부담을 이월하는가?

기본 판단은 **전면적인 소비 호황보다, 운전자금과 일부 투자 수요를 뒷받침하는 선택적 회복**이다. 대출은 결제와 생산의 중단을 막는 완충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산 거래·차환에 머물거나 원리금 부담이 소득보다 빨리 늘면, 신용 확대가 다음 소비와 투자를 제약한다.

관측된 사실	분석적 의미	판단을 바꿀 증거
가계대출 +6.4조원 **10월·전 금융권** [1]	담보·기타대출이 함께 증가. 증가액을 소비재원으로 볼 수 없음	실질소득과 소비의 동반 개선
기업대출 +10.2조원 **10월·은행** [2]	기업의 조달 증가와 신규 설비 발주는 별개	시설자금·수주·현금 회수의 연결
민간소비 −0.2% **3분기·실질 전기비** [5]	실물 회복의 확산은 대출과 다른 자료로 판단	소비·비반도체 투자로 확산

긍정적으로 보는 경로

확정 주문을 가진 기업이 결제 시차를 메우고 생산·고용을 유지한다. 가계는 일시적 소득 공백을 완충할 수 있다.

경계하는 경로

대출로 자산가격이나 기존 채무를 지탱하지만 영업현금과 소득이 늘지 않는다. 만기 연장은 손실의 해소와 다르다.

독자에게 남길 기준

대출 증가 → 자금 용도 → 신규 생산·소비 → 소득·현금 회수 → 원리금 상환. 이 사슬의 어느 단계가 개선되는지 판단한다.

02 / CREDIT BASELINE

가계 6.4조원과 기업 10.2조원은 같은 분모가 아니다

단위는 조원. 10월 월중 잔액 증감이며 신규 실행 총액이나 실질 구매력 증가액이 아니다.



가계 총계 안에 은행권을 포함. 기업 통계는 은행 기준. [1] [2]

전 금융권 가계대출 6.4조원 안에는 은행권 5.0조원과 제2금융권 1.4조원이 포함된다. 은행권 가계대출을 다시 더하면 중복이다. 기업대출 10.2조원은 은행 기준이므로 두 항목의 합을 한국의 전체 민간신용 증가로 부를 수도 없다. [1] [2]

관측치	포착하는 범위	포착하지 못하는 것
가계대출 +6.4 [1]	금융권 가계대출의 순증	가계 전체 부채·판매신용·사용처
기업대출 +10.2 [2]	은행 기업대출의 순증	회사채·CP·해외차입·비은행 차입 전체
은행 수신 +30.4 [2]	은행이 받은 자금의 잔액 변화	대출로 재사용할 대기자금 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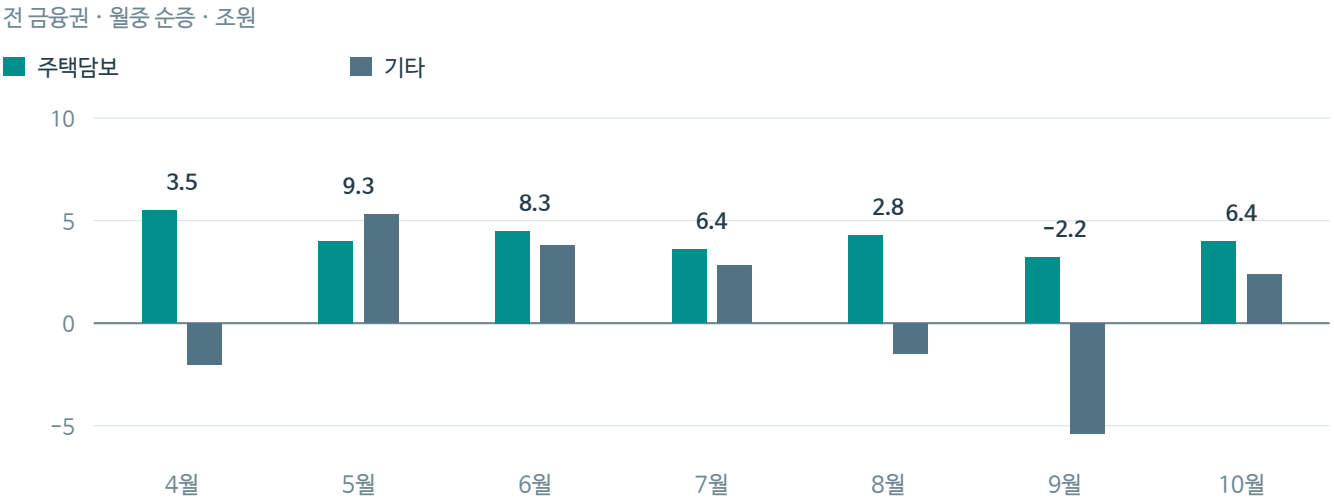
해석

은행 대출과 수신은 서로 연결된 대차대조표다. 수신 증가에서 대출 증가를 뺀 차이를 곧바로 유휴자금이나 소비 여력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12]

03 / HOUSEHOLD REBOUND

반등의 대부분은 기타대출의 방향 전환에서 나왔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의 월별 순증.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을 같은 기간·범위에서 비교한다.



막대 위 숫자: 합계 순증. 10월 잠정. [1]

월중 순증 · 조원	9월	10월 잠정	증가폭 변화
주택담보대출	+3.2	+4.0	+0.8
기타대출	-5.4	+2.4	+7.8
합계	-2.2	+6.4	+8.6

순증 규모의 변화 8.6조원 중 기타대출 변화 7.8조원이 **90.7%**에 해당한다. 이는 증가폭 변화에 대한 산술 비중이지, 10월 신규대출 중 소비용 대출의 비중이 아니다. 한편 10월 순증의 62.5%는 주택담보대출이다. [1] · TradeLens 재계산

경기의 강도와 구분할 신호

한국은행 설명을 인용한 보도는 9월 상각·상여금의 기저효과와 10월 주식 순매수를 배경으로 들었다. 따라서 한 달 반등을 내구재 소비나 생활비 수요의 급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14]

04 / CORPORATE CREDIT

운전자금은 회복의 징후일 수도, 회수 지연일 수도 있다

10월 은행 기업대출과 2분기 용도별 통계를 구분한다. 분기 자료를 10월의 사용처로 대체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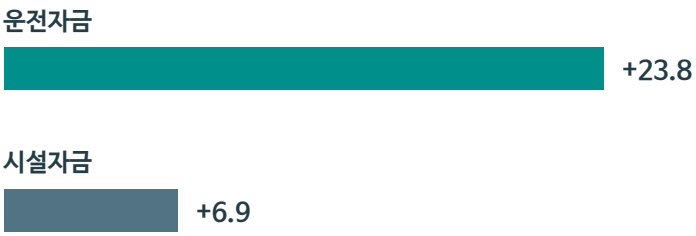
10월 은행 기업대출

+10.2

조원 / KRW tn

직전 9월 +10.7조원 [2]

2분기 예금취급기관 · 조원



두 패널은 기간과 범위가 다르다. 10월 용도별 추정치가 아니다. [2] [3]

은행 기업대출은 9월 10.7조원에 이어 10월에도 10.2조원 증가했다. 보완 보도는 중소기업 대출에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세금·급여·원재료 결제를 위한 차입은 생산을 유지할 수 있지만, 모두 증설을 위한 자금은 아니다. [2] [14]

같은 운전자금 증가	건전한 확장	유동성 압박
매출채권	수주·매출 증가에 비례	판매는 정체, 수금만 지연
재고	확정 주문에 대응한 준비	판매 부진으로 회전율 하락
차입 만기	회수 시점과 맞춤	반복 연장에 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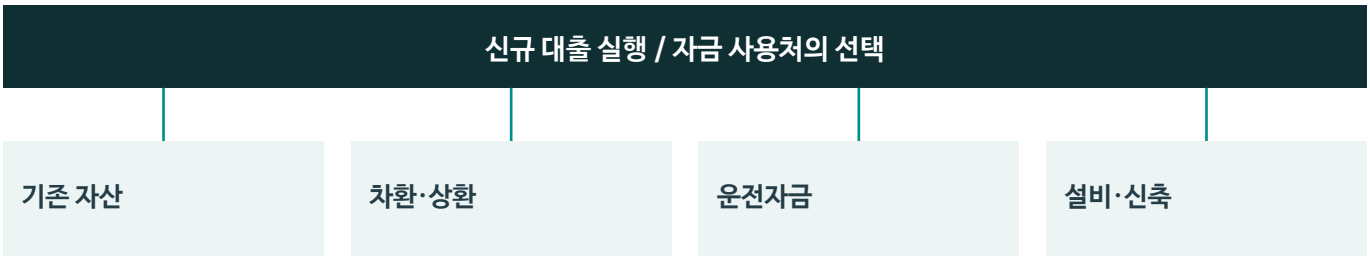
현재 가능한 판단

2분기 산업별대출에서는 운전자금 증가 23.8조원이 시설자금 6.9조원의 약 3.45배였다. 총계 30.6조원과 항목 합계의 0.1조원 차이는 공표 반올림 범위로 남긴다. [3]

05 / TRANSMISSION MAP

대출 실행과 신규 부가가치 사이에는 여러 갈림길이 있다

TradeLens 분석 도식. 같은 대출이라도 첫 수취인과 최종 지출처에 따라 실물 효과가 달라진다.



새 지출·소득·현금 회수로 이어지는 정도는 경로마다 다르다.

거래 경로	실물경제로 연결되는 조건	과도한 해석
기존 주택 매입	매도자의 소비·신축·서비스 수요로 재유입	거래대금 전액을 당기 생산으로 계산
차환·기존 부채 상환	금리·만기 개선이 실제 가용현금을 늘림	새 대출 총액을 새로운 구매력으로 계산
재고·매출채권 금융	물량 증가·수금 정상화와 동행	운전자금을 모두 성장 또는 부실로 분류
설비·신축 투자	설치·가동·판매를 거쳐 현금이 발생	시설자금 전체를 즉시 국내 GDP로 계산

신용은 지출의 재원이지 지출의 결과가 아니다. 자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금융자산 취득이 있더라도, 거래가격 전체가 새로 생산한 재화·서비스의 가치는 아니다. 수입 설비 역시 국내 설치·운영 효과와 수입액을 구분해야 한다.

중요한 반대 논리

실물지출의 순증이 작더라도 결제 연쇄를 유지해 생산 감소를 막을 수 있다. 신규 성장을 만든 효과와 더 큰 위축을 방지한 효과는 다르지만, 후자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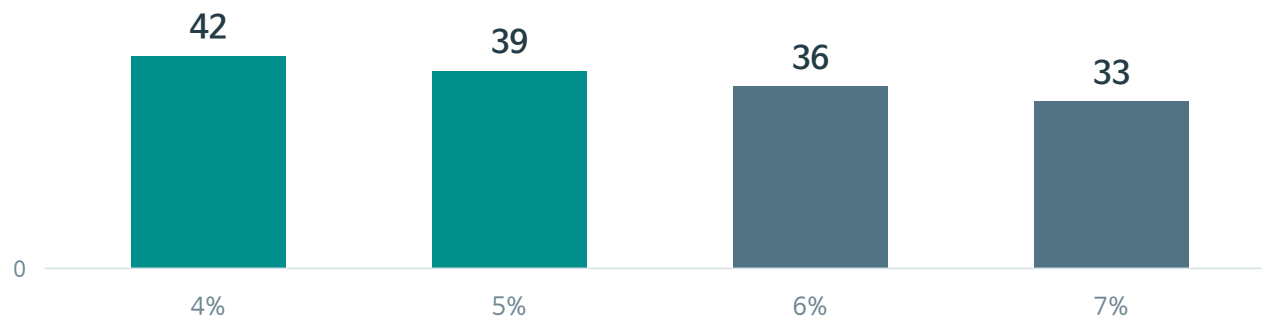
06 / HOUSEHOLD CASH FLOW

차입 여력이 늘어도 다음 달 소비 여력은 줄 수 있다

설명용 가정 · 실제 한국 가계의 평균이나 금융규제상 DSR 계산이 아니다.

가처분소득 연 6,000만원, 대출잔액 3억원, 연간 원금상환 600만원을 가정한다. 원금은 연말에 납부하고 이자는 기초 잔액에 적용한다. 금리 외 조건과 소득·저축을 고정하면 금리 1%p 상승은 연 300만원의 추가 이자 부담을 만든다.

상환 후 연간 가용액 · 백만원



금리	연 이자	원리금 합계	상환 후 가용액
4%	1,200만원	1,800만원	4,200만원
5%	1,500만원	2,100만원	3,900만원
6%	1,800만원	2,400만원	3,600만원
7%	2,100만원	2,700만원	3,300만원

5%에서 6%로 상승할 때 상환 후 가용액은 7.7% 줄어든다. 이는 소비의 실제 감소율이 아니다. 가계는 저축 축소·근로소득·자산 매각·만기 조정으로 대응할 수 있고, 고정금리·금리 재설정 시점에 따라 충격의 시차도 다르다.

거시적 판단 기준

신용 공급만 보지 말고 차주의 실질소득 증가, 이자 재설정, 원금상환 일정을 함께 본다. 새로운 대출이 기존 부담을 메우는 동안 소득이 회복되지 않으면, 오늘의 완충은 미래의 제약이 된다.

07 / WORKING-CAPITAL TEST

매출이 늘지 않아도 운전자금 대출은 10억원 늘 수 있다

설명용 가정 · 연간 매출 120억원, 현금 매출원가 90억원, 1년 360일 기준.

항목	기준	수금 지연	매출 20% 성장
연간 매출	120.00억원	120.00억원	144.00억원
매출채권 회수일	60일	90일	60일
재고 / 매입채무 일수	60일 / 45일	60일 / 45일	60일 / 45일
매출채권	20.00억원	30.00억원	24.00억원
재고 − 매입채무	3.75억원	3.75억원	4.50억원
순운전자금	23.75억원	33.75억원	28.50억원
기준 대비 추가 필요	-	10.00억원	4.75억원

순운전자금 = 매출채권 + 재고 − 매입채무. 기준 모형의 현금전환주기는 75일이다. 수금만 30일 늦어지면 105일로 늘고, 매출 증가 없이 10억원을 더 묶어 두어야 한다. 이 금액을 연 5.5%로 빌리면 연 이자 5,500만원이 추가된다.

수금 지연형 차입

신규 주문이 없어도 대출이 증가한다. 손익보다 현금흐름이 먼저 악화할 수 있으므로 연체 이전의 회수일수 변화를 본다.

성장 대응형 차입

회전일수가 유지된 채 매출이 20% 증가하면 추가 필요자금은 4.75억원이다. 대출의 크기보다 매출·회전율과의 대응이 중요하다.

> **모형의 함의**
>
> 월중 기업대출 증가만으로 투자 의지나 부실을 판정할 수 없다. 동일 기업의 매출·재고·수금·지급조건을 연결해야 생산적 신용과 방어적 차입을 구분할 수 있다.

08 / INVESTMENT & DEBT SERVICE

생산능력의 확대와 상환능력의 확보는 다른 단계다

설명용 가정 · 10억원 차입, 5년 균등 원금상환, 첫해 기초잔액에 이자 부과.

연 원금상환은 2억원이다. 첫해 금리 5.0%이면 원리금은 2.50억원, 6.5%이면 2.65억원이다. 아래 현금은 세금·유지투자·운전자본 변화를 반영한 뒤, 원리금 상환 직전에 남는 금액으로 가정한다.

연 상환재원 현금	금리 5.0% 커버리지	금리 6.5% 커버리지	판단
1.50억원	0.60배	0.57배	내부현금만으로 부족
2.50억원	1.00배	0.94배	작은 금리 변화에도 부족
3.50억원	1.40배	1.32배	완충은 있으나 보장 아님

대출 집행 〉 **설치·검수** 〉 **상업 가동** 〉 **판매·수금**

원리금 지급은 시작됐는데 현금 회수는 늦어질 수 있다.

커버리지 = 상환재원 현금 ÷ 원리금. 1배는 해당 연도 상환액과 현금이 같다는 뜻이지 투자수익률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다. 가동 지연·고객 승인·판매단가가 현금을 바꾸면, 낮은 대출금리만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회복에 가까운 투자

대출 승인보다 고객 주문, 설비의 실제 인도·가동, 유지비 차감 후 현금이 중요하다. 차환은 시간을 벌지만 손익분기점과 장기 회수 가능성을 대신하지 않는다.

09 / MONEY & BALANCE SHEETS

예금과 M2가 늘어도 소비에 같은 돈을 두 번 더할 수 없다

은행 대출·예금·통화량은 상호 연결되지만, 범위와 관측 시점이 같은 통계는 아니다.

9월 M2는 계절조정 평잔 기준 전월보다 0.4%,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보다 5.5% 증가했다. 10월 은행 수신은 30.4조원 늘었다. 서로 다른 달·범위·집계방식의 지표를 한 개의 소비 재원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8] [2]

은행 자산	은행 부채
대출 +100	**예금 +100**
차주의 상환 의무	예금자의 청구권

설명용 대차대조표. 대출 100과 예금 100은 독립적인 구매력 200이 아니다. [12]

대출이 실행되면 차주의 예금과 채무가 함께 늘 수 있다. 이후 지급은 예금의 소유자를 바꾸고 원금 상환은 대출·예금을 줄인다. 대출과 예금이 함께 증가했다고 해서 가계·기업의 순재산이 같은 금액만큼 늘어난 것은 아니다. [12]

통계	경제적 질문	판단을 위해 필요한 추가 관측
M2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늘었나	보유 주체·자산 구성·거래 회전
은행 수신	은행의 자금 조달 구성이 어떻게 변했나	예금 만기·고객 구성·시장성 조달
대출	차입 규모가 어떻게 변했나	용도·상환일정·비금융지출

분석

화폐 보유는 지출의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지출을 강제하지 않는다. 금리·불확실성·부채 부담이 높으면 유동성 증가와 소비의 완만한 회복이 공존할 수 있다.

10 / WHO HOLDS THE CASH?

기업 전체의 여유자금과 개별 기업의 차입은 공존한다

2분기 자금순환을 구조적 배경으로 사용한다. 10월 자금 사용처의 추정치는 아니다.

2분기 순자금운용 · 조원



금융자산 거래 − 금융부채 거래. 현금 잔고가 아니다. [9]

2분기 가계·비영리단체 순자금운용은 60.7조원, 비금융법인은 67.1조원이었다. 순자금운용은 금융자산 거래에서 금융부채 거래를 뺀 흐름으로, 모든 구성원의 현금 잔고나 미사용 투자예산을 뜻하지 않는다. [9]

함께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가능한 구조	분석상 주의
대기업 현금 축적 + 중소기업 차입	이익과 자금의 기업별 편중	집계 흑자로 취약차주 위험을 지우지 않음
기업 자산 취득 + 기업 대출 증가	운용과 조달의 동시 확대	부문 순운용을 부문 무차입으로 해석하지 않음
가계 금융자산 증가 + 상환 부담	자산 보유자와 차입자의 차이	평균 자산으로 개별 상환능력을 판단하지 않음

실물 회복의 연결고리

기업 이익이 배당·임금·투자·협력사 결제로 이동해야 가계와 다른 기업의 현금흐름으로 확산된다. 부문 간·부문 내 분배와 시차가 신용 총량만큼 중요하다.

11 / PRICE & ACCESS TO CREDIT

신용의 양이 늘어도 가격과 문턱은 높아질 수 있다

금리는 9월, 통화정책은 10월 22일, 서베이는 4분기 전망이다.

지표	수준	변화·성격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7]	연 4.57%	전월 대비 +0.17%p
잔액 기준 총대출금리 [7]	연 4.48%	전월 말 대비 +0.08%p
한국은행 기준금리 [11]	3.00%	10월 22일 동결
4분기 대출행태 전망 [10]	대체로 강화	기업·가계 신용위험 증가 예상

신규금리는 새로 빌리거나 재가격화되는 차주의 조건을, 잔액금리는 기존 차입 전반에 반영되는 평균 부담을 보여준다. 평균 금리 변화에는 차주·상품 구성 변화도 포함되므로 모든 차주의 이자가 같은 폭으로 올랐다는 뜻은 아니다.

공급 확대와 선별 강화

은행은 일부 우량차주의 대출을 늘리는 동시에 다른 차주의 한도를 줄일 수 있다. 대출 총량 증가만으로 취약기업의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

정책의 상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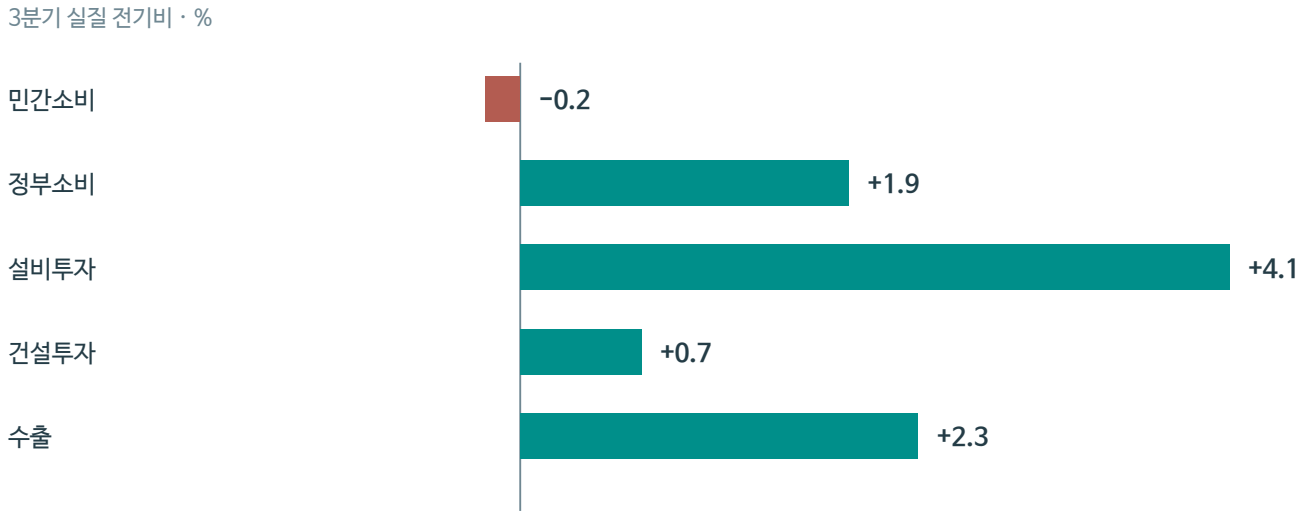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물가·주택시장·가계부채 위험을 함께 고려한다. 대출 회복을 곧바로 금리 인하나 완화 국면의 신호로 읽는 것은 현재 정책 방향과 다르다. [11]

> **은행 이익에도 같은 기준**
>
> 대출 확대의 수익은 조달비·신용비용·자본 소요를 차감해야 한다. 대출성장률 하나로 은행과 실물기업이 함께 이익을 얻는다고 판단할 수 없다.

12 / REAL-ECONOMY CROSS-CHECK

대출의 회복을 실물지표로 확인할 때 기간을 맞춰야 한다

3분기 실질 지출항목의 전기 대비 증감률. 각 항목의 성장기여도가 아니다.



개별 항목의 증감률이며 성장기여도가 아니다. [5]

3분기 GDP는 전기 대비 1.0% 성장했다. 설비투자는 4.1% 늘었지만 민간소비는 0.2% 줄었다. 따라서 경제 전체의 확장과 가계 소비의 회복을 같은 판단으로 묶지 않는다. 3분기 실적은 10월 신용 증가의 효과가 아니라 대출 수요가 형성된 실물 배경으로 사용한다. [4] [5]

9월 월간 실물지표 [6]	전월 대비	해석
소매판매	+3.6%	재화 소비의 월간 반등
설비투자	+5.3%	기계·운송장비 투자의 증가
건설기성	+5.8%	진행된 공사의 실적 증가

확인의 순서

9월 반등이 이후에도 지속되는지, 소비가 서비스로 확산되는지, 신규 신용이 실제 주문과 지출에 연결되는지 순서대로 확인한다. 월간 반등만으로 분기 추세나 대출의 인과효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13 / WHERE THE BENEFITS GO

수혜는 대출을 많이 받는 곳보다 현금을 회수하는 곳에 남는다

TradeLens 분석 · 종목 추천이 아닌 차주·산업별 경제적 노출의 구분.

주체	신용 확대의 편익	편익이 약해지는 조건	우선 확인 지표
수주가 확정된 제조기업	재료·인력 선투입으로 납기 준수	납품 지연·매출채권 장기화	수주/수금·재고일수
설비·공사 공급업체	고객 투자 집행에 따른 매출	고객 조달 취소·검수 지연	선급금·마일스톤 청구
내수 서비스·소매	가계의 일시적 현금 공백 완충	원리금·생활비가 소득을 압박	실질매출·객단가·회전
변동금리 차주	오늘의 결제 여력	금리 재설정·원금상환 집중	소득 대비 현금 상환액
은행·비은행	이자수익·고객 기반 확대	조달비·대손·자본 부담 증가	연체 흐름·신용비용·예금비
기존 자산 보유자	거래 유동성과 매수 기반	가격 조정·차환 제약	거래량·담보·순현금

소비·생산으로 이어지는 신용은 지급을 받는 공급자·근로자에게 다시 소득을 만든다. 반면 기존 자산 거래에서 생긴 자금이 채무 상환이나 금융자산 보유에 머물면 그 즉각적인 파급은 달라진다. 경제적 귀속은 대출의 최초 수취인과 같지 않다.

산업별 판단

운전자금이 늘었다는 사실보다 주문·결제의 정상화와 연체 감소가 함께 나타나는지가 중요하다. 실물 성과 없는 담보가격 상승은 회복의 증거로 취급하지 않는다.

14 / SCENARIOS & FALSIFICATION

기본 경로는 선택적 회복, 상방은 소득·투자의 확산이다

조건부 전망 · 임의의 GDP 기여도, 금리 목표 또는 시나리오 확률을 부여하지 않는다.

시나리오	관측돼야 할 조건	경제적 결과
기본: 선택적 회복	운전자금 공급 지속, 수주·결제는 유지. 가계는 금리·원리금 부담에 대응	생산 중단을 줄이지만 소비·투자 회복은 업종별 차별화
상방: 생산적 확산	시설자금·실제 설비집행 증가. 실질소득·소비·현금 회수가 동반 개선	매출·임금·재투자로 순환하며 부채 대비 상환재원이 개선
하방: 방어적 차입	수금·재고 회전 악화. 고금리 차환과 상환 부담 확대	금융이 손실을 이월하며 투자 축소·소비 위축 압력

현재 판단을 강화하는 증거

대출은 늘되 실질소비 회복은 완만하고 운전자금 수요가 우세하다. 만기 연장보다 정상 결제가 생산 유지에 기여한다.

현재 판단을 바꾸는 증거

수주·시설자금·가동·소득이 함께 개선되면 상방으로, 매출 없이 차환·연체가 누적되면 하방으로 판단을 이동한다.

대출이 줄어도 영업현금으로 투자를 집행하면 실물은 개선될 수 있다. 반대로 대출이 늘어도 신규 부가가치가 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신용의 변화율은 단독 경기판정 지표가 아니라, 회수 가능한 소득을 만드는 금융의 작동 여부를 읽는 입력값이다.

> **핵심 전망**
>
> 현재의 신용 증가는 일부 생산과 결제를 지지하지만, 광범위한 내수 호황을 확정할 근거는 아니다. 돈의 최종 사용처와 상환재원의 개선이 기본 전망을 바꾸는 조건이다.

15 / MONITORING & FINAL VIEW

다음 발표에서는 대출 잔액보다 세 가지 연결을 본다

분석 기준일 이후 예정된 공표일정. 일정·통계는 변경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 [13]

예정일	자료	판단할 연결
11월 18일	3분기 가계신용	금융권 대출과 판매신용의 전체 범위
11월 20일	3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총량과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11월 25일	10월 가중평균금리	대출 순증과 실제 조달가격
12월 4일	3분기 산업별대출금	기업대출과 운전·시설자금의 구성
12월 9일	3분기 국민소득(잠정)	속보 소비·투자 판단의 개정

첫째, 용도별 대출 증가가 실제 지출과 대응하는가. 둘째, 지출이 매출·임금·영업현금으로 회수되는가. 셋째, 그 현금이 원리금 부담보다 빨리 늘어나는가. 같은 차주·범위·기간을 맞춰 이 연결을 확인해야 신용 확대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최종 판단

한국의 신용 확대는 실물 회복을 도울 수 있다.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신용 총량의 재확인이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자금과 현금 부족을 메우는 자금의 구분이다. 생산·소비를 늘리면서 상환재원을 키우는 신용일수록 회복의 지속성이 높다.

> **세 가지 확인선**
>
> 용도 → 실물지출 / 실물지출 → 현금 회수 / 현금 회수 → 상환능력. 어느 연결이 끊기는지가 다음 위험이며, 함께 개선되는지가 회복의 증거다.

16 / SOURCE REGISTER · DATA & DEFINITIONS

출처 목록

본문 출처번호와 자료명·원문 열기를 누르면 해당 자료로 연결됩니다.

0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2026년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원문 열기

2026.11.12 · 공식 통계 본문 · 전 금융권·업권별·대출항목별 증감

02. 한국은행·KDI 자료소개 | 2026년 10월 금융시장 동향 원문 열기

2026.11.11 · 한국은행 발표의 KDI 요약 · 은행 기업대출·가계대출·수신

03. 한국은행 | 2026년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원문 열기

2026.09.07 · 공식 통계 본문 · 운전·시설자금과 산업별 증가액

04. 한국은행 | 2026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원문 열기

2026.10.27 · 공식 통계 본문 · 실질 GDP·GDI, 전기비와 전년비

05. 한국은행·KDI 자료소개 | 3분기 GDP 지출항목 원문 열기

2026.10.27 · 한국은행 발표의 KDI 요약 · 소비·설비·건설·수출

06. 국가데이터처 | 2026년 9월 산업활동동향 원문 열기

2026.10.30 · 공식 통계 본문 · 생산·소매판매·설비투자·건설기성

07. 한국은행 |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원문 열기

2026.10.29 · 공식 통계 본문 · 신규취급액·잔액 기준 대출금리

자료의 시점·정의·적용 범위를 유지했다. 모형은 별도로 표시한 가정에 따른다.

17 / SOURCE REGISTER · POLICY & METHODOLOGY

출처 목록

본문 출처번호와 자료명·원문 열기를 누르면 해당 자료로 연결됩니다.

08. 한국은행 | 2026년 9월 통화 및 유동성 원문 열기

2026.11.13 · 공식 통계 본문 · M2 평잔, 계절조정 전월비·원계열 전년비

09. 한국은행·KDI 자료소개 | 2026년 2분기 자금순환(잠정) 원문 열기

2026.10.07 발표 / 10.08 게시 · 한국은행 발표의 KDI 요약 · 부문별 순자금운용

10. 한국은행·KDI 자료소개 | 2026년 4분기 대출행태 전망 원문 열기

2026.10.26 · 여신담당자 설문 요약 · 대출태도와 신용위험의 방향

11. 한국은행 | 통화정책방향 원문 열기

2026.10.22 · 정책 결정 · 기준금리 3.00%, 물가·주택·신용 위험

12. 영란은행 | Money creation in the modern economy 원문 열기

2014 Q1 · 중앙은행 해설 · 인쇄면 14~17쪽, 대출·예금·상환의 관계

13. 한국은행 | 2026년 월간통계 공표일정 원문 열기

2026.11.14 기준 · 예정 일정 · 11월 가계신용·차주별 부채·금리, 12월 산업별대출

14. EBN | 전세대출 줄어도 주담대 들썩…은행 가계대출 5조 늘었다 원문 열기

2026.11.11 · 보완 보도 · 한국은행 설명 인용, 계절성·주식투자·부가세 수요

자료의 시점·정의·적용 범위를 유지했다. 모형은 별도로 표시한 가정에 따른다.

18 / METHODOLOGY & USE

작성 기준 및 이용 안내

자료·계산 기준 / 면책고지 / 저작권 및 이용 제한

자료·계산 기준

분석 기준일은 2026년 11월 14일이다. 가계대출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10월 잠정치, 은행 기업대출은 한국은행 10월 발표의 KDI 요약을 사용했다. 용도별 산업대출과 자금순환은 2분기 자료이며, 이를 10월 사용처로 추정하지 않았다. GDP는 3분기 속보, 월간 실물·금리는 9월 자료다. 통화는 계절조정·원계열 기준을 각각 표시했다.

월중 순증·신규 실행액·잔액·성장률·기여도는 구분했다. 기타대출의 90.7%는 월별 순증 변화의 기여 비중이다. 공표 반올림으로 용도별 대출 합계와 총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가계·운전자금·설비 모형은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차주의 평균·회사 실적·경제성장률 예측이 아니다. 현금흐름 계산은 세금·회계·규제상 지표와 구분한다. 예정 공표일정과 잠정 통계는 변경될 수 있다.

면책고지

본 보고서는 시장·산업 및 기업의 경제적 구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가격·목표가격 및 이용자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와 분석은 작성일 기준이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망·가정 및 예시 계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원금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레이드렌즈는 본 보고서 이용에 따른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제한

본 보고서의 서술·도표·디자인·편집 및 구성 중 트레이드렌즈가 권리를 보유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 열람·보관 외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편집·번역·재가공하거나 복제·전송·재게시·재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료·무료 제공 및 파일·화면 캡처 등 형태를 불문하며 로고·출처·권리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과 제3자 자료의 개별 이용허락조건은 그에 따릅니다. 공유는 트레이드렌즈 공식 게시페이지의 원문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